

2010 희망을 쓴다

① 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센터 입주작가들

현대미술의 메카 북경서
세계적 스타작가 꿈꾼다

“미술은 없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영국의 미술사가 에른스트 고폰브리치(1909~2001년)는 명저로 꼽히는 ‘서양 미술사’(The Story of Art: 1950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장식했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역사가 곧 예술사라는 뜻이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꿈을 잃지 않고 창작에 몰두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호랑이 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 일기’를 쓰고 있다.

미술, 공연, 문학 등 자신의 분야에서 ‘예리하게 세상을 보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虎視牛步) 젊은 예술가들을 만난다.

2010년 첫 월요일인 4일 오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의 중국 창작센터가 자리 잡은 베이징 파산쯔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의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였다. 이곳은 지난해 시립미술관이 선정한 5명의 지역 작가가 입주해 있는 꿈의 스튜디오다. 이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개인별로 제공된 170㎡(50평)의 작업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구급 29일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1기 입주 작가는 김해성(48·회화·조



4일 오전 중국 베이징 파산쯔 창작예술지구의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작가들이 새해 희망을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숙, 김해성, 김진화, 김일근, 조강현씨.

을 시작했다. 화구를 정리하다보면 장갑을 낀 손가락이 금세 얼어붙지만 이들 가슴 속에 자라나고 있는 ‘희망’만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며칠만에 모든 짐을 풀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작업과 함께 각국에서 물려든 환티에 창작예술지구 입주 작가들과의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화씨는 “광주에서 해오던 기존 작업과는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싶다”면서 “수많은 갤러리가 몰려 있어 다양한 전시를 보면서 현지의 특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작센터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환티에 창작예술지구에 위치해 있어 이들 작가들의 기법과 작품의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근씨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중국 현지인의 모습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조강현씨는 “중국이라는 광활한 풍경과 대륙을 직접 보고, 창작의 폭을 한 층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환티에지구 등지 ‘세계미술 흐름 한눈에’

각국 작가들과 교류 ... 활발한 창작 활동

선대 미술학과 졸업), 전현숙(46·회화·전남대 예술대학), 조강현(45·회화·호남대 미술학과), 김진화(40·설치 및 회화·호남대 미술학과), 김일근(39·설치 및 조각·조선대 조소과)씨.

이들이 처음 맞이한 건 시속 3km를 넘는 북풍을 동반한 혹한이었다. 통신 사정도 나빠, 인터넷은 불통이었고 맘 놓고 가족에게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이 뚫고 나가야 할 중국 현대미술의 높은 장벽만큼이나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했다.

추위 속에서도 이들은 각자의 작업실을 정리하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첫 출발

이들이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서두르는 것은 현대 미술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각오 때문이다.

1기 입주작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해성씨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평소 동경했던 중국 무대에 작품을 발표하고, 현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면서 “입주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겠다”고 말했다.

전현숙씨는 “그동안 지역적인 한계로 별다른 해외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작품을 알리고, 세계 무대

동화작가 김옥애씨 ‘경사’

제 5회 광주일보 문학상 선정에 이어

문예진흥 문학창작 기금 2천만원 받아

제5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동화작가 김옥애(65·사진)씨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0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대상사업 문학창작기금지원 대상자로 뽑혔다.

문학창작기금지원사업은 예술적 역량과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작가에게 창작의 욕을 고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기획된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매년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씨는 이번 정기공모에 청자의 고향 강진을 배경으로 고려청자 이야기를 엮은 장편동화를 제출해 선정됐다.

김씨는 이번 선정과 관련 “지난해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에 이은 겹경사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며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씨는 “이번에 쓸 작품이 고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의미가 크며 늦어도 10월경에는 선보일 예정이고 내년 강진청자축제 때 강진을 찾는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5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에 동화 ‘우물가물’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강진 출

생으로 광주교육대학교 호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 1999년 명예퇴직 후 현재는 광주에서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1998년 광주예술문화특별공로상, 2003년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강진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2회 강진고문문화예술대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년을 여는 부녀 음악회

피아니스트 김대진씨, 딸 화라씨와 광주 무대

13일 유·스퀘어 문화관

김선옥, 손열음 등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길러낸 피아니스트 김대진씨가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딸 화라(19·폴리어드 음악원 재학)씨와 함께 광주 무대에 선다.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콘서트는 광주 금호아트홀이 2010년 신년음악회로 준비한 연주회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8번’ 사장조 작품번

호 30’,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제 2번 라단조 중 사론느’,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가단조 작품번호 82’,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루토슬라브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수비토’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지도자로 자리를 굳힌 김대진씨는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금호제일버뮤직소사이어티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5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화라씨는 8살때인 1999년 서울시향 최연소 협연



김대진씨



김화라씨

자로 발탁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금호영재 리사이틀 초청연주, 일본 이사와 국제음악제 ‘아카데미 어워드’ 등을 수상하며 차세대 연주자로 각광 받고 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8천원. 유·스퀘어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 올 첫 행사

8일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서 ‘겨울에 우는 소리’

지휘자 박호진씨 지도

매일 한차례(두번째주 금요일)씩 모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 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옥)가 2010년 첫번째 행사를 갖는다. 8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 브라운 카페.

‘겨울에 우는 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임춘희 곡 ‘겨울강’을 배우며 ‘희망의 나라로’, ‘동심초’, ‘산노을’, ‘가고파’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모임부터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거쳐 현재 아버지합창단과 광주광복상여즈 지휘자로 활동 중인 박호진씨가 지도를 맡는다.

16회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는 올해 일년에 두차례씩 회원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발표회와 야외음악회, 송년음악회도 준비 중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16-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년 미술경매 낙찰액 701억

2007년의 3분의 1 수준 하락

미술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내 미술경매 낙찰액은 2007년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2009년 미술시장 결산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경매 낙찰액은 701억8천6만원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이는 미술시장이 최저점에 이르렀던 2007년 경매 낙찰액 1천926억6천413만원과 비교하면 36% 수준이다.

/연합뉴스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합력이 효도선물 인기입니다

전국 최저가 판매

분량이 다른 비데 전문기술이 전하는 실속 있는 효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NO-KA150
290,000원
219,000원
정가비 7000원

문의: 062-515-1144
비데프라자

"비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을 꼭 읽어주세요!"

침하된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1.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2.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3.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비데를 복원하고, 연약지반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